

대인관계에서 4단7정 정서의 경험*

한 덕 응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조선시대 성리학의 4단7정론 가운데 4단과 7정 정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에서 도출한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4단7정 정서를 각각 유발하는 선행조건→4단7정 경험→후행 사회적 및 개인적 결과를 연결지어서 일련의 과정으로 다루는 심리학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 과정을 다루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4단7정 경험의 선악 구분과 상호 포함관계에 관한 명제들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여 검증이 가능한 가설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4단7정론에 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섯 연구에서 이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4단7정 용어들의 의미연결 구조를 다룬 다차원분석 결과를 보면 긍정 - 부정과 능동 - 수동의 두 차원을 이루었는데, 긍정 - 부정 차원에서 4단과 7정 정서들이 대부분 4단7정론과 일치했으나 7정들 가운데 사랑과 기쁨은 선한 정서에 속해서 불일치되었다. 선악 차원으로 축을 해석한 결과 역시 긍정 - 부정 차원과 유사했다. 의미유사성 자료를 군집분석했을 때도 긍정, 부정 군집 이외에 시비가 중립 군집으로 묶였다. 4단7정 정서들을 개인적 선악의 관점과 사회적 공동선의 관점에서 선악 수준을 각각 평정한 자료에서는 평균으로 보면 4단이 선하면서 필요한 정서로 평가되었으며, 선하며 필요한 정서로 평가된 수준에서 4단이 7정보다 더 선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4단 가운데 수오는 악한 정서로 평가되고 7정 가운데 사랑과 기쁨은 선한 정서들로 평가되었다. 4단과 7정의 상호 포함관계를 다룬 두 연구에서 측은은 슬픔과 사랑에 관련되며, 수오는 두 요소들로 나누어 볼 때 각각 화남과 두려움과 관련되고, 사랑은 사랑과 기쁨과 관련되었으며, 그리고 시비는 화남과 관련되었다. 4단과 7정 범주의 차이를 직접 비교한 이 연구의 결과들은 4단7정론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데 따르는 장애 과제 및 연구설계와 관련지어서 논의하였다.

유학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를 다루는 독자적 이론이 있다. 조선시대 한국유학의 쟁점이 된 바 있는 4단7정론은 인간의 정서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종의 동양 심리철학인데 현재 시점에도 동양철학 분야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예: 민족과 사상 연구회, 1994; 김기현, 2000). 그러나 일종의 정서이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심리학적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논문은 조선조 성리학에서 전개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혹은 四七論) 가운데 실증 연구가 가능한 심리학적 가설 명제들을 개발하고, 이 가운데 몇 개 가설들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와 같은 실증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1) 사단칠정론에 관해서 심리학적으로 더 나은 대안 해석을 모색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가설 명

* 이 연구는 1995년도 성균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1996년 한국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준 김정남(경상대), 김교현(충남대), 성한기(호성카톨릭대), 이종구(대구대) 교수, 그리고 이창호, 강혜자, 이경성 박사 및 심홍섭, 이진효, 박군석, 한인순 강사에게 감사한다. 자료의 수집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최훈석(피츠버그대 박사과정)을 비롯해서 사회심리학교실의 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다.

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2) 새로운 실증 연구의 설계를 고안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며, 3) 성리학의 사단칠정론에서 제안된 여러 이론들을 실증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상대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4)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대 상황에서도 심리학적 가설로서 통용될 수 있는 유학의 정서론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5)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유학에서 전개된 사단칠정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심리학 이론들을 개발하여 현대 사회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 정서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유학의 사단칠정론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의 발전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 이미 예기(禮記)를 보면,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경험들을 간편하게 지칭하거나 혹은 기본 정서들을 요약하는 의미에서 정서 목록으로 기쁨(喜), 노함(怒, 성남, 노여움), 슬픔(哀, 서러움), 두려움(懼), 사랑(愛, 애정), 혐오(惡, 미움), 욕망(欲, 욕심)의 칠정(七情)으로 정리했다.

한편, 맹자(孟子, 孟子, 公孫丑章句上)에서는 인간이 생래적으로 지니는 선한 본성이 표출된 정서로서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사단(四端)이 언급되었다. 맹자는 사단이 인간의 생래적 속성이지만 이를 확충하여 잘 발현할 수 있어야 개인은 물론 사회관계 역시 인간다움이 신장된다고 본다.

맹자의 주장 가운데 특히 이론의 측면에서 주의를 끄는 점은 사단을 이른바 사덕(四德)과 각각 연결지은 부분이다. 즉,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사단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난다고 가정된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각각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단서(端)라고 주장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맹자는 사단(四端)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송(宋) 나라매 주희(朱熹)는 이 단(端)의 의미를 단서(端緒)라고 해석했다. 한편 다산(茶山)은 조기(趙岐)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단(端)을 시작, 첫머리(首)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다산(茶山)의 관점에서 보면 4단 정서의 경험을 시작으로 선한 행위가 실행될 때에만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사덕(四德)의 명칭이 성립된다.

맹자에 의해서 사단 정서가 언급됨으로써 유학에서 사단과 칠정이 함께 묶여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론으로서 사단칠정이 함께 묶여서

성리학의 심성론(心性論) 및 이기론(理氣論)과 연결짓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주희(朱熹) 이후로 볼 수 있다.

주희(朱熹)의 신유학 혹은 성리학에서 사단칠정에 관한 해석이 제시된 뒤 16세기 이후 조선조 성리학에서 주희의 해석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중요한 이론적 쟁점이 된다. 이 논쟁이 이른바 사단칠정론이다. 사단칠정론은 성리학에서 발전된 심성론(心性論)과 이기론(理氣論)을 4단과 7정에 연결짓는 이론이 대두되면서 전개된다.

사단칠정론에서 전개된 동양철학 혹은 한국철학의 이론과 쟁점들은 현재 시점에도 동양철학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예: 민족과 사상연구회, 1992; 김기현, 2000). 한편 4단7정론을 심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한 시론(試論) 수준의 논문이 몇 편 국내에서 발표된 바 있다(정양은, 1970; 한덕용·전경구, 1991, 1995; 한덕용, 1993, 1994, 1996, 108-134쪽, 208-230쪽). 또한 필자(1996, 55-57쪽)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4단7정론을 심리학에서 이론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과 실증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과 연구 설계를 모색해 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의 인지적 평가나 명명(命名)에 초점을 맞추어서 4단7정론에서 제안된 몇 개 대안 가설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4단7정 정서를 주관적으로 경험된 평가나 명명의 측면에서만 다루게 되면 4단7정론에서 제기된 여러 과제들을 폭 넓게 다루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나 장래 연구를 위하여 4단7정 주관적 정서의 경험을 다루는 일이 필수적이다.

4단7정론이 전개된 조선조 성리학에서 정(情)은 성(性)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 때문에 의미로 볼 때 이미 심적으로 경험된 감정, 욕구, 사고, 의도, 행동경향 등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본 정서들에 관한 서구의 이론들과 실증 연구에서 보는대로 4단7정 가운데 7정 경험은 주관적 정서의 평가나 명명의 측면으로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4단7정 가운데 7정과 마찬가지로 4단 역시 행동 의

도나 실제로 표출된 행동 요소를 포괄할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4단 가운데 측은(惻隱)이나 수오(羞惡)에서도 주관적 경험은 물론 행동 의도나 표출된 행동의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사양(辭讓)과 시비(是非)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4·7정서를 주관적 경험으로 한정하여 정서의 평가나 명명의 측면에서만 다루면 4단 정서가 지니는 행동 의도나 행동 표출의 측면이 간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우선 4·7 정서의 평가나 명명의 측면을 다루려는 이유가 있다. 현재까지 사단칠정에 관해서 심리학의 실증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로 볼 때, 실증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얻고 새로운 대안 가설들을 개발하기 좋은 방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기대하기로는 정서의 평가나 명명의 측면에서 주관적 경험을 다루더라도 이 측면에서 4단과 7정의 차이를 해명할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4·7론의 궁극적 과제는 4단과 7정이 서로 구별되는 범주로서 양자 사이에 차이가 난다고 가정하는 근거를 밝히는 데 있다. 달리 말해서 4단과 7정 범주가 심리학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고 가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므로 이 차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접근법으로 연구할 때 잘 해명될 수 있는지 알아내는 일이 실증 연구의 과제가 된다.

4단과 7정의 차이를 해명하는 과제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실증 연구가 가능한 몇 가지 측면을 선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4단과 7정이 의미론의 측면에서 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의미론의 관점에서 4단과 7정이 구별된다면 의미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4·7론들의 상대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4단과 7정이 선악의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구분되는지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이 가설은 퇴계에 의해서 제안되어서 奇高峯이나 李相殷이 대립가설(對說)이라고 부른 사단과 7정의 이차원 분류설이다.

셋째, 4단과 7정 정서들 각각의 상호 관계를 다룰 수 있다. 율곡은 7정이 모든 정서들을 대표하는 명칭이라고 보기 때문에 4단 역시 7정에 포함된다(七包四)고 주장한 바 있다. 율곡은 구체적으로 측은(惻隱)은 기쁨

(喜), 슬픔(哀), 사랑(愛, 애정) 및 욕심(欲, 욕망)에 포함되며, 수오(羞惡, 수치심과 타인혐오)는 노함(怒, 분노, 분함)과 혐오(惡, 미움)에 포함되고, 시비(是非)는 기쁨(喜), 노함(怒), 사랑(愛, 애정)과 두려움에 포함되며, 사양(辭讓)은 두려움(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율곡은 4단이 7정으로 구성되는 복합 정서라고 가정했다. 퇴계는 율곡이 제안한 이 분석을 따르게 되면 4단이 선(善)이며 순리(純理)인 점에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고 보고, 칠포사(七包四)의 가설을 배척한다. 율곡의 칠포사 가설은 여러 방식으로 여러 정서들의 상호 포함 관계(包)를 정의함으로써 실증 연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상호 포괄이론이 더 타당한지 검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주관적으로 명명된 4·7 정서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세 측면을 다룬다.

4단과 7정의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네번째 측면으로 유학에서 강조하는 대표적 대인관계 혹은 사회관계의 유형별로 각각 4단과 7정을 일으키는 전형적 상황이나 사건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4단과 7정을 각각 우세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상황이나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내면 4단과 7정 범주의 기본 속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4단과 7정을 일으키는 전형적 상황이나 사건들이 선악의 평가 기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 측면으로 다루게 되면 성리학의 선악 평가 기준으로 볼 때 4단과 7정 두 범주의 정서들이 서로 구별되는 선행 조건의 성질을 알아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4단7정의 각 정서가 우세하게 경험되는 선행 사회 상황이나 사건들을 대인관계(혹은 사회관계; 예, 부모-자녀, 부부)별로 조사해서 발생 빈도가 높은 전형적 사회 상황들이나 사건들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또한 4단이나 7정을 우세하게 경험하는 상황이나 조건들이 선악의 기준에서 차별적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다섯째, 중요한 대인관계(혹은 사회관계) 유형별로 4단이나 7정의 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 혹은 조건들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이나 선악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측면의 연구들 가운데 4단 7정론이 성립된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유학에서 선악의 판단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이 유학 심리학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시점에서 4단7정론을 심리학적으로 심층적으로 다루려면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각각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별도의 연구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4단7정의 관계를 심리학의 관점에서 해명하기 위해서 실증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몇 측면들을 살펴 보았다. 이 실증 연구의 단면들을 시계열로 보면, 4단7정이 유발되는 상황, 4단7정의 경험, 4단7정 경험 후의 개인적 및 사회적 결과로 연결된다. 이를 간략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4·7의 유발 상황 혹은 조건(사회관계 × 행동적 사건 × 평가기준) → ② 4·7 경험 → ③ 개인적 혹은 사회적 결과

4단7정론에서 제안된 여러 대안 이론들의 타당성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려면 이 일련의 과정들 각각과 시계열의 연결 관계에 대한 대안 이론들의 해석을 근거로 일관된 이론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기 연구에서는 전 과정을 연결지어서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선 4단7정론에서 제안된 일관된 설명과 조화될 수 있는 단위 과정의 이론과 실증 연구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① 4단7정의 각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 ② 4·7 정서의 주관적 경험, 그리고 ③ 4단과 7정 각 정서의 경험으로 초래되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4·7 정서의 유발 상황이나 정서 경험 후의 결과를 문제삼지 않고, 일상적으로 경험한 4·7의 성질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즉, ①-②-③의 전 과정에서 ② 4·7 경험의 성질을 해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4·7 경험의 의미론적 구조와 선악 판단의 구조를 대비시켜서 4단7정의 차이를 알아보고, (2) 울곡의 칠포사(七包四假說) 가설을 다루기 위하여 4단과 7정의 상호 포함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섯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4단과 7정의 모든 정서들이 의미의 연결망으로 볼 때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 알아본다. 이 연구 1을 통해서 4·7 정서들의 구조에서 4단과 7정 범주의 정서들이 어떤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4단과 7정 정서들을 선악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퇴계의 가설처럼 4단과 7정이 각각 선하고 악하다고 평가되는지 검증한다. 아울러 울곡의 가설대로 4단은 선하다고 평가되지만 7정은 선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善惡未定)여서 선악 판단에서 중립적으로 평가되는지도 검증하게 된다.

연구 3에서는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4단과 7정의 모든 정서들이 어떤 연결 구조를 이루는지 알아본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에서 얻은 자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 선악 판단의 결과는 연구 1의 의미론적 구조와 비교하여 4단7정을 구분하는 배경을 논의한다.

연구 4와 연구 5는 4단이 7정에 포함된다는 울곡의 칠포사가설(七包四假說)을 검증한다. 칠포사가설에서 제안된 포함 관계(包)의 정의가 모호하다. 필자는 포함 관계의 정의에 따라서 칠포사가설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 관계의 측정적 정의를 두 연구에서 달리 사용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포함관계를 정의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4는 글자 그대로 4단의 각 정서들이 7정의 각 정서에 각각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측정한다. 연구 5에서는 포함 관계를 4단 각 정서와 7정 각 정서가 주관적으로 경험될 때 공동 발생된다고 경험하는 수준으로 측정한다. 또한 연구 4와 연구 5의 결과를 비교하여 그 가운데 일관된 결과에 의해서 칠포사가설을 검증한다.

연구 1: 4단7정 정서의 의미론적 구조

4·7 정서의 성질을 해명하는 기초 과제 가운데 하나로서 4단과 7정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정서들이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의미의 연결망으로 볼 때 4단과 7정 범주 각각의 정서들이 각 범주 내에서는 근접되게 위치하면서 4·7 범주간 위치는 크게 구별된다면 4·7 정서 범

주의 구분이 정서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서 구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4·7의 정서 범주와 상관없이 각 정서들이 다른 형태로 연합되어서 서로 구별되는 의미 연결망을 이룬다면 4·7 범주의 구분이 정서들의 의미론적 구조에 따라서 분류된 범주가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두 대안 해석의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4·7 범주의 구분이 과연 정서들의 의미 유사성에 근거해서 분류됐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4단7정에 포함되는 각 정서들의 번역 용어들을 여러 대안으로 만들어서 27개의 4·7 정서 용어들을 각각 적은 7×10cm 크기의 카드로 만들었다. 이 27개 정서 카드들을 “의미가 유사한 정도에 따라서 10개 내외의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되, 범주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서 정서 카드들을 분류하는데는 83명의 대학생들이 각자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범주의 수를 개인별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분류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서들 상호간의 비유사측정치가 산출되고, 이 비유사계수 행렬을 군집분석(average linkage cluster analysis)에 따라서 분류하고, 또한 AISCAL 절차에 따라서 다차원분석(multidimensional analysis, MDS)도 수행했다. 동일한 자료를 두 가지 다른 기법으로 분석한 이유는 결과의 해석이 분석의 기법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고 실제 의미 차이에 기인하는지 알아냄으로써 의미론적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려는데 있다.

이 예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4·7 정서의 대안적 번역 용어들 가운데 각 정서들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필자가 판단한 14개 용어들만으로 군집분석과 다차원분석을 다시 실시했다.

참고로 27개 용어를 사용했을 때 MDS 결과를 보면, 3차원을 추출했을 때 Kruskal의 공식 1로 측정된 stress 수준이 .184였고, 2차원 추출 후 3차원 추출했을 때 개선된 설명 변량은 2%에 불과했다. 2차원을 추출했을 때 각 정서들의 좌표치를 27개 용어로 분석한 결과와 14개 용어로 분석한 결과가 매우 유사했다.

다차원분석에서 얻은 좌표치들을 선악 차원에서 해석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별도로 4단7정론을 잘 모르는 170명의 대학생들이 총 13개의 4단과 7정 정서 각각을 선-악 쾌-불쾌 양극 차원에서 9점 척도에 평정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의 대상으로 4단7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대학생들을 선정한 이유는 성리학에서 4덕은 물론 4단의 경험 역시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이 타당하다면 대학생의 경우에도 비록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4단 경험을 선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사의 대상들이 지니는 인구통계론적 성질에 관해서는 연구 2에서 피험자를 설명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이 정서 용어들의 평정치들로부터 추다예언되는 선악 차원과 쾌-불쾌 차원의 축값을 얻었다.

결과 및 논의

4단7정에 포함되는 13개 정서들 간의 의미 비유사성 측정치들을 사용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4단7정에 포함되는 13개 정서들을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서 범주화했을 때 크게 세 군집으로 묶음을 볼 수 있다.

사양(辭), 양보(讓), 사랑(愛) 및 기쁨(喜)의 네 개 긍정적 정서들이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이 정서들은 4·7 구분으로 보면 사양과 양보가 사양지심에 포함되며, 기쁨(喜)과 사랑(愛)은 7정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네 정서들의 군집은 4·7의 두 범주와 무관한 긍정적 정서들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군집은 측은(惻隱), 슬픔(哀), 수치심(羞), 두려움(懼), 욕심(欲), 화남(怒), 타인혐오(惡), 및 분함(怒)의 8개 정서들이 함께 묶이는 군집을 이룬다. 이 정서들은 의미에 의해서 해석해 보면 앞에서 살펴본 긍정적 정서들과 대조되는 부정적 정서들임을 알 수 있다. 이 정서들 가운데 측은과 슬픔은 수치심과 두려움과 함께 묶여서 하위 군집을 이루는데, 다른 하나의 하위 군집과 비교해 보면 부정적이지만 소극적 정서들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하위 군집과 함께 묶이는 다른 하위 군집에는 타인혐오감(惡), 화남(怒)을 핵심으로 욕심(欲)과 분함(怒)이 함께 묶인다. 이 하위 군집은 부정적이며, 대상 지향적이고, 활동성이 높은 정서들로 볼 수 있다.

군집분석의 결과에서 세번째 범주에는 위의 두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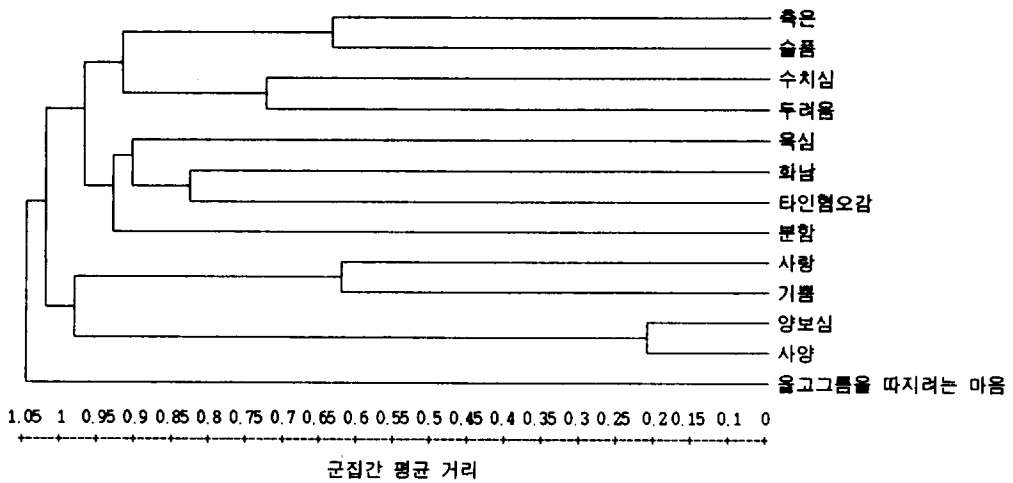


그림 1. 4단7정 정서들의 의미 비유사성 군집분석 결과 (Average Linkage Cluster Analysis)

에 포함되지 않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是非)만이 분리되었다. 4단 정서에 포함된 이 정서는 위의 두 범주의 정서들이 긍정-부정의 측면에서 분류된 바와 달리 중립적으로 분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집분석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의미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사용한 연결망으로 볼 때 4·7 정서들이 긍정적-중립적-부정적 정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세 범주로 나뉜다. 이 결과로부터 의미의 연결 관계로 볼 때 4단과 7정에 포함되는 모든 정서들이 4단과 7정이라는 두 범주로 묶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자료를 다차원분석 기법으로 처리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검토하기로 하자. 다차원분석에서 3차원을 추출하면 2차원을 추출했을 때보다 0.6% 미만의 개선을 보여서 2차원만 추출되었다. 2차원을 추출했을 때 stress 수준은 .243이었다. 4·7 정서의 좌표치는 표 1에 제시되었고, 이 좌표치를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 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 안에 타원형 묶음으로 군집분석 결과를 그려 넣었다. 제 1차원 한 쪽 끝에는 화남(분함), 타인혐오, 욕심, 두려움, 수치심, 및 슬픔이 놓인다. 제 1차원 반대편에는 사랑, 사양(양보), 기쁨 및 측은이 놓인다. 제 1차원의 좌측에 측은과 사양(양보)의 두 사단 정서가 놓이기는 하지만 7정의 사랑과 기쁨이

포함되며, 우측에 4단의 수오가 포함된다. 즉, 제 1차원의 양쪽에 4단과 7정 정서가 놓이는 형태로 구분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제 1차원의 상단에 욕심, 화남(분노), 타인혐오가 두 차원에서 함께 묶인 결과는 군집분석 결과와 일치하는데, 부정적이며, 대상 지향적이고 활동적 정서들이다. 제 1차원은 긍정적-부정적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1. 4·7 정서들의 의미 비유사성 다차원분석 결과(좌표치)

4·7 정서들	차 원	
	1	2
측은	-.9227	-.9788
수치심	.8367	-1.1437
타인혐오감	1.1656	.3771
사랑하는 마음	-1.2360	-.8559
양보심	-1.4081	-.5931
옳고그름을 따지려는 마음	-.5472	1.6302
기쁨	-1.1433	1.1543
화남	1.1775	.3524
분함	1.1545	.3841
슬픔	.7347	-1.0079
두려움	.8581	-.7790
사랑	-1.5279	.2490
욕심(욕망)	.8582	1.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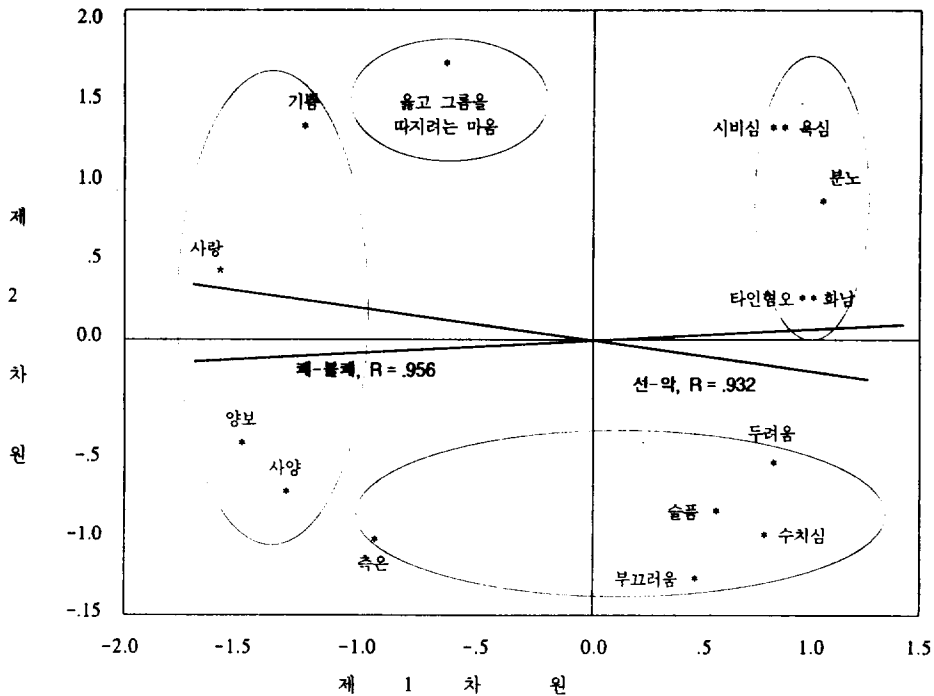


그림 2. 4단7정 정서들의 의미 연결 관계의 다차원분석 및 군집분석 결과

제 2차원은 이보다 해석이 곤란하다. 제 2차원 상단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 욕심, 및 기쁨이 놓인다. 그 반대편인 하단에는 수치심, 슬픔, 측은 등이 위치한다. 이 결과로부터 능동-수동(혹은 적극-소극)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연구 1의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4단7정 정서들을 의미 연결 관계로 측정하게 되면 4단과 7정 범주로 구별되게 추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다차원분석 결과에서 4단 가운데 측은과 사양(양보)이 가까이 위치하고, 7정 가운데 화남(분함), 슬픔, 두려움, 미움 및 욕심이 가까이 위치하여 양극을 이루는 점은 4·7 범주 구분과 일치된다. 그러나 7정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4단의 사양(양보) 및 측은과 함께 위치하고, 사단 가운데 수오(수치심, 타인혐오)는 7정의 부정적 정서들과 함께 묶여서 4·7 범주 구분과 불일치된다. 한편, 4단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是非)은 다차원분석의 긍정-부정 차원에서나 군집분석에서 모두 독립적 위치에 놓였다.

연구2: 4단7정 정서의 선악 판단

이 연구 2와 연구 3에서는 4단과 7정의 범주에 각각 포함되는 정서들이 선악 판단에서 퇴계나 율곡의 가설 가운데 어느 가설에 가깝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4단과 7정의 선악 판단에 관해서는 퇴계와 율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퇴계는 4단이 순선이며 7정은 선악이 정해지지 않은 정서지만 악으로 호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퇴계의 4단에 대한 관점은 이기론(理氣論)을 근거로 4단이 이(理)의 발현(發)으로 본점에서(退溪全書, 上, 附奇明彦四端七情總論, 442쪽) 분명해진다. 退溪가 정리한 바를 인용하면 4단은 이(理)가 발(發)하여 기(氣)가 따르는 것이며, 7정은 기(氣)가 발하여 이(理)가 타는 것이다(四端, 理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理乘之, 聖學十圖, 心統性情圖說, 205쪽).

퇴계가 4단과 7정을 각각 이(理) 및 기(氣)와 연결시키는 바와 달리, 율곡은 4단이 주리(主理)라 함은 옳으

나 7정을 주기(主氣)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7정은 이기를 포함하여 말한 것이니 주기(主氣)가 아니라고 주장한다(栗谷全書, 答成浩源, 199-200쪽).

4단7정 정서에 관해서 이기론(理氣論)이 대입되어 이른바 사단칠정론이 전개된 이후에도 그 이전과 일관되게 성리학적 의미에서 4단이 선한 정서라고 보는 점은 같다. 조선 성리학에서 퇴계와 율곡의 관점 역시 이 점에서는 일치된다.

한편 퇴계나 율곡 모두 7정에 관해서는 선악이 정해지지 않은(善惡未定) 정서라고 가정한다. 7정이 선악미정이라고 가정해서 조선조 성리학자들이 제안한 가설은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퇴계는 7정이란 선악이 정해지지 않은 정서지만 대체로 악으로 흐르기 쉽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7정은 악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가설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율곡은 7정이 그 자체로는 선악 미정이지만, 7정이 각각 경험되는 상황의 적합성에 따라서 선이나 악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서 7정 각 정서가 경험되는 상황의 적합성은 이른바 성리학적 당위(所當然)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필자가 제시한 이 해석의 추론 근거를 율곡의 설명에 의해서 살펴보자. “무릇 사람의 정(情)은 당연히 기뻐할 때 기뻐하고, 상사(喪事)에서는 슬퍼하며, 친해야 할 바는 사랑하고, 진리(理)를 보면 궁구(窮究)하려 하며, 어진 이를 보면 것처럼 되려고 하니, (이 喜, 哀, 愛, 欲의 네 가지 정은) 인(仁)의 실마리(端)이며, 노(怒)할 자리에 노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함은 (이 怒, 惡의 두 가지 정은) 의(義)의 실마리(端)이며, 존귀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함은 (이 懼는) 예(禮)의 실마리(端)이며, 희(喜), 노(怒), 애(哀), 구(懼) 각각에 대하여 기뻐해야 할 때를 당면해서는 당연히 기뻐해야 함을 알고, 성낼 때를 당면해서는 당연히 성내야 함을 (알며, 슬퍼할 때를 당면해서는 당연히 슬퍼해야 함을 알고, 두려워할 때를 당면해서는 당연히 두려워해야 함을) 아는 일(이는 是에 해당)과 마땅히 기뻐하지 않고, 마땅히 성내지 않으며, 마땅히 슬퍼하지 않고,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을 아는 것(이는 非에 해당)은 지(智)의 실마리(端)이니, 선한 정이 발(發)하는 것을 일일이 들 수 없으나 대개 이

와 같다”(栗谷全書, 答成浩源, 199쪽).

이 설명은 성리학적 당위의 기준에서 상황의 적합성 여부를 문제삼지 않으면 7정들은 그 자체로는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율곡의 주장은 상황의 적합성을 묻지 않고 7정들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면 중립점으로부터 선이나 악의 방향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가설로 바꿔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퇴계와 율곡의 4단7정의 설명을 대안 가설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서가 성리학의 당위의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한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면, (퇴계가설) 4단은 선으로 판단되고 7정은 악으로 판단되거나, (율곡가설) 4단은 선으로 판단되지만, 7정은 선악의 중립점에 가깝게 평가된다(퇴계·율곡 공통가설).

퇴계와 율곡의 주장이 이처럼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악 평정치의 평균으로 볼 때 두 사람이 공통되게 4단 정서들은 7정 정서들보다 더 선하다고 판단한다(4·7평가차이가설). 즉, 4단이 선한 정서로 가정되고 7정은 선악 중립이거나 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4단과 7정 범주에 속하는 각 정서의 선악 평가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예언된다. 연구 2는 이 예언들의 상대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방법 및 절차

4단7정 정서 용어들을 제시하고 “각 감정 혹은 정서들이 어느 정도나 악하거나 선한 정서라고 평가되는지” 매우 악함(1)부터 선악 무관(5)을 거쳐 매우 선함(9)까지 9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악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필자의 해석에 따라서 유학에서 강조하는 공동선의 관점에서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토록 하기 위하여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도”도 평정하였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없는 정서(1)에서부터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정서(9)까지 9점 척도에 평정하였다.

이 조사의 대상은 4단7정을 잘 모르는 서울 소재 K대 대학생 167명이었다(남자 77명, 여자 90명).

결과 및 논의

4단7정 각 정서들에 대해서 선악 판단 및 좋은 사회

표 2. 4단7정의 선악 평정치 평균(표준편차)

		4 단		7 정		4·7 차이 t검증
선악판단	측은	6.70(1.31)	기쁨	7.00(1.32)		
	수치심	4.92(1.46)	화남	4.02(1.29)		
	타인혐오	2.56(1.31)	(분노)	3.62(1.45)		
	사양심	6.53(1.22)	슬픔	5.79(1.25)		
	양보심	7.81(0.92)	두려움	4.65(1.18)		
	울고그픔을	6.29(1.36)	사랑	8.03(1.28)		
	따짐		미움	3.08(1.27)		
			욕심	4.23(1.66)		
	4단 전체	5.80(0.62)	7정 전체	5.05(0.61)		t = 13.65***
좋은사회 - 나쁜사회 판단	측은	6.13(1.50)	기쁨	7.57(1.03)		
	수치심	4.21(1.83)	화남	3.42(1.47)		
	타인혐오	2.36(1.29)	(분노)	3.21(1.73)		
	사양심	6.66(1.44)	슬픔	4.25(1.73)		
	양보심	7.91(1.09)	두려움	3.54(1.50)		
	울고그픔을	6.61(1.69)	사랑	8.28(0.94)		
	따짐		미움	2.41(1.45)		
			욕심	4.07(2.10)		
	4단 전체	5.64(0.71)	7정 전체	4.60(0.79)		t = 15.65***

1) 5점 이상 높은 점수일수록 선하다는 평가 2) *** p < .001

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동선의 정도를 판단한 평정치의 평균은 다음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로 보면 선악이나 좋은 사회의 공동선을 기준으로 평정했을 때 4단 정서들은 평균적으로 선하다고 판단되고(5.80), 좋은 사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5.64).

정서별로 보면 4단에 포함되는 6개 정서들 가운데 선악 판단에서는 타인혐오(羞惡의 靚, 2.56)만이 악한 정서로 평가되고, 자기 수치심(羞 4.92)은 선악 판단에서 중립적 정서로 평가되었다. 선악 중립인 5.00을 기준으로 볼 때 4단 가운데 나머지 세 정서는 모두 선한 정서로 판단됨을 볼 수 있다.

4단 정서가 사회의 공동선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도를 판단했을 때도 타인혐오(2.36)가 나쁜 정서로 평가되고 자기 수치심(4.21)이 다소 나쁜 정서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4단 가운데 수오(羞惡)가 정서 자체로서는 선악의 판단에서 중립적이거나 다소 악한 정서로 판단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정서가 선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특수한 사회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순선으로 판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퇴계나 율곡이 공통되게 4단이 순선(純善)이라고 제안한 가설(퇴계·율곡 공통가설)은 4단 정서들 전체의 평균에 관한 가설로 해석할 때는 지지된다. 그러나 이들의 가설을 4단 정서들이 모두 각각 선한 정서들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선악이나 좋은 사회에서 필요한 공동선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측은, 사양 및 시비는 지지되고 수오(羞惡)만은 예외적으로 지지되지 않는다.

한편, 7정에 대한 평정 결과를 보면, 7정을 선악 수준으로 평정한 평균은 5.05이었고, 좋은 사회에서 필요한 공동선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4.60이었다. 이 결과는 선악이나 사회에서의 필요성 판단에서 모두 평균으로 볼 때 중립적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7정이 선악을 기준으로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율곡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7정에 관한 퇴계가설의 제안 배경이, 7정의 선악미정(善惡未定)을 전제로 삼고, 7정이 악으로 흐르는 경향이 농후함을 주장한데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퇴계 이론에서 보더라도 경험되는 상황의 적합도에 따라서 7정이 선하거나 악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사회 상황에서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7정 정서들을 알아내어서 이 정서들에 대한 평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퇴계의 7정 가설을 더 적절하게 검증할 수 있겠다.

한편, 이 연구의 서론에서는 4단과 7정 정서의 평가치 평균이 유의하게 다르다는 평가차이가설을 제시하였다. 즉, 4·7론자들이 모두 4단의 선함을 가정하고 7정은 선악이 미정이거나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4단 정서들이 7정 정서들의 평가보다 유의하게 선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 4·7평가차이가설은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선악판단($t_{169}=13.65, p<.001$)이나 사회적 공동선의 판단($t_{169}=15.65, p<.001$)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7정 전체 평균치를 떠나서 세부적으로 각 정서의 평균치를 살펴보자. 선악 판단에서는 7정 가운데 사랑(8.03), 기쁨(7.00), 슬픔(5.79)의 세 정서는 선한 정서들로 평가되고 두려움(4.65)은 중립적 정서로 평가되고, 미움(3.08), 분노(3.62, 화남 4.02) 및 욕심(4.23)은 나쁜 정서로 평가되었다. 한편 사회에서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성 판단에서는 사랑(8.28), 기쁨(7.57)만 공동선에 기여하는 정서로 평가되고, 미움(2.41), 분노(3.20, 화남 3.42), 두려움(3.54), 욕심(4.07) 및 슬픔(4.25)은 불필요한 정서로 평가되었다.

7정 정서의 평가에서 선악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좋은 사회의 공동선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에서, 정서의 판단 결과는 대부분 유사하지만, 다소의 불일치점도 발견된다. 즉, 선악 판단에서는 슬픔(5.79)이 다소 선한 정서로 판단된 반면, 좋은 사회에서 공동선의 필요성 판단에서는 다소 나쁜 정서(4.25)로 평가되었다. 또한 선악 판단에서 두려움(4.65)이 중립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좋은 사회에서 공동선의 필요성에서는 3.54로서 불필요한 정서로 평가되었다.

이 불일치가 생긴 이유는 선악 판단에서는 쾌불쾌나 호불호의 개인적 선악 판단 기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반면에 공동선의 기준이 작용하는 좋은 사회에서의 필요성 판단에서는 슬픔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물적이거나 인적인 위협을 회피하려는 반응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 불일치는 유학에서 제안된 이른바 도덕적 선악 판단 과정을 심리학에서 연구할 때 조작적 정의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을 시사한다.

이 연구 2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4단은 개인적 선악 판단이나 사회 공동선을 기준으로 판단한 두 조건에서 모두 평균으로 볼 때, 선하며 사회에 필요한 정서로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퇴계와 율곡의 이론에서 일치되는 공통의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사단 중 수오(羞惡)만은 두 판단에서 모두 나쁜 정서로 평가되었다. 7정은 개인적 선악이나 사회에서 공동선을 기준으로 필요성을 판단한 결과에서 모두 중립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율곡의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퇴계는 7정이 선악미정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악에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경계하고자 하였다. 이 주장을 검증하려면 도리에 합치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조건에서 나타나는 실제 정서 경험의 빈도를 측정하거나 선악 판단치를 얻어서 7정의 상황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3: 선악 판단에 근거한 4·7정서의 구조

4단7정 정서가 각각 선과 악의 범주로 판단되는 정서들인지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연구 1처럼 정서들의 의미 유사성을 근거로 의미론적 연결망을 해석하는 이외에 다른 기법을 사용해서 검증할 수도 있다. 4단7정 두 범주의 정서들을 선악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 4단과 7정의 범주에 속하는 정서들은 함께 묶이고 범주간 정서들은 서로 달리 묶이는 형태로 구조화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즉, 의미망 연구보다 더 직접적으로 4단7정 정서들 각각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했을 때, 이 판단치들로 측정된 정서들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4단7정이 어떤 선악의 판단 차원을 이루는지 알아볼 수도 있다. 이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4단7정의 각 정서를 하나씩 선악 차원에서 직접 평정했을 때와 달리, 묵시적으로 내재화된 4단7정의 선악 판단 구조에 의해서 4단과 7정이 서로 다른 범주나 동떨어진 위치를 점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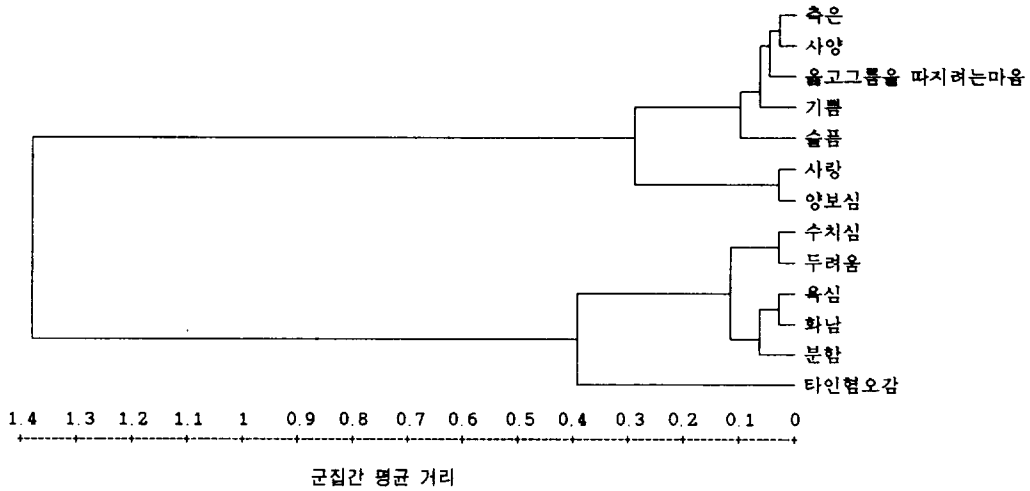


그림 3. 개인의 선악 판단을 기준으로 얻은 4단7정의 군집분석 결과

본 연구 3에서는 선악 판단에 근거를 두고 4단과 7정의 연결관계를 알아냄으로써, 의미론적 차원과 달리, 선악 차원에서 4단과 7정 범주의 정서들이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위상을 해명하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각 정서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선악 수준과 나쁘거나-좋은 공동사회를 이루는 정도를 평정한 연구 2의 자료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4단7정에 포함되는 정서들을 하나씩 각각 제시하여 (1) 개인의 관점에서 선악 수준을 평정하게 하여 모든 4·7정서의 선악 판단이 끝난 후 (2) 다시 각 정서들이 좋거나 나쁜 공동사회를 이루는 정도를 7점 척도에 평정하였다. 이 자료로부터 정서들을 각각 짝지워서 쌍별 선악 판단의 차이 값을 산출하여 연구 1과 동일한 기법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했다.

조사의 대상은 연구2에서 밝힌대로 4단7정을 잘 모르는 서울 시내 소재의 K대 대학생 167명이었다(남자 77명, 여자 90명).

결과 및 논의

먼저 개인적 기준에서 4·7정서들을 선악판단한 자료로부터 차이 값들을 얻어서 군집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악 판단에 근거를 두면 크게 선악의 두 군집으로 묶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군집간의 평균 거리는 매우 멀지만 군집내 정서들간의 평균 거리는 매우 가까움을 볼 수 있다.

두 군집들 가운데 선한 정서로 판단된 여섯 정서들에는 4단 가운데 측은, 사양, 울고 그림을 따지려는 마음(즉, 시비)의 세가지가 포함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4단7정을 의미 유사성에 따라서 다차원분석과 군집분석했을 때 4단 가운데 사양만 긍정적 정서에 묶이고 측은과 울고 그림을 따짐(是非)이 선의 범주에 일관되게 포함되지 않은 바와 대조적이다.

이 연구 결과는 4단의 선함을 가정하는 퇴계 및 율곡의 주장에 근접된 결과이다. 4단에 포함되는 수오(羞惡, 수치심과 타인혐오감)만 악한 정서의 군집에 묶였는데, 수오가 달리 묶인 결과는 의미론적 분석에서와 동일하다. 선한 정서에 포함된 7정으로는 기쁨(喜), 슬픔(哀), 및 사랑(愛)이 포함되었다. 이 정서들이 선한 정서로 묶인 결과는 각각 7정이 선악미정이거나 악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주장한 율곡이나 퇴계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악한 정서들로 평가된 범주에는 수치심(羞), 두려움, 욕심(慾), 화남(怒, 분함)과 타인혐오감(惡)이 묶였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 4는 4단7정의 각 정서들이 좋은 공동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도를 평정한 자료에서 얻은 군집분석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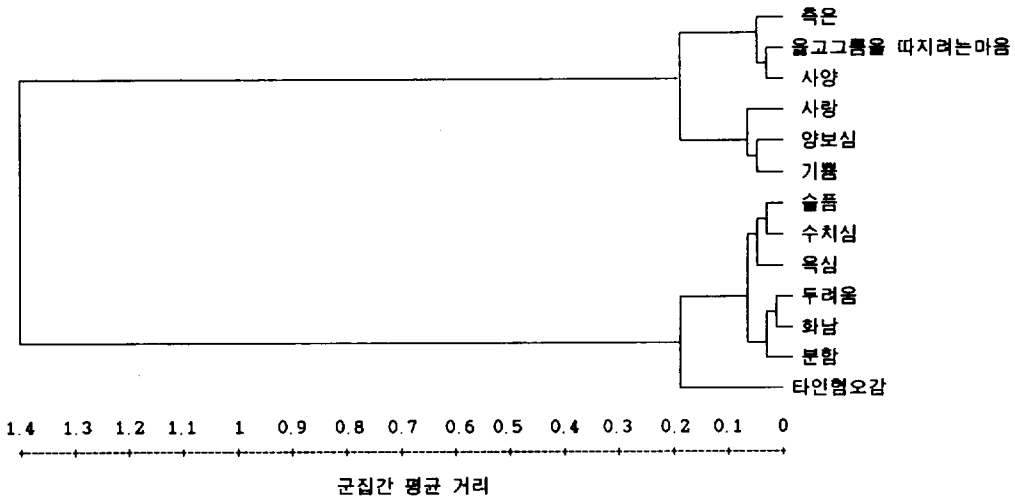


그림 4. 좋은 사회-나쁜 공동사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얻은 4단7정의 군집분석 결과

이 그림에서 좋은 공동사회-나쁜 공동사회를 이루는 수준을 판단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선악을 판단했을 때와 일치되게 4·7정서들이 좋은 공동사회에 필요하거나 필요없는 두 범주로 묶임을 볼 수 있다. 즉, 바람직한 공동사회에 필요한 정서들에는 4단 가운데 측은, 사양(사양과 양보), 시비(울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의 세 가지 4단 정서들 이외에 사랑과 기쁨이 포함된다. 반면, 바람직한 공동사회에 필요없는 정서들에는 7정 가운데 화남(화남과 분함), 슬픔, 두려움, 욕심이 포함되고, 4단 가운데 수오(수치심과 타인혐오감)가 포함된다.

이 결과는 개인적 선악 판단에서와 대부분 일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보인다. 즉, 개인적 선악 판단에서 슬픔이 선한 정서의 군집에 포함된 바와 달리, 바람직한 공동사회에 필요한 정도를 판단했을 때, 슬픔은 나쁜 정서의 군집에 묶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선악 판단의 경우보다 바람직한 공동사회에서 필요성을 판단했을 때 4단과 7정을 양분하는 분류 범주에 더욱 근사한 군집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는 선악 판단의 경우 개인적 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서 판단자 개인의 선악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사회적 필요성의 판단에서는 유학에서 추구하는 공동선(共同善)의 관점과 일치되게, 개인적 선의 관점을 벗어나서 평

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 3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단7정 정서들을 개인적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한 자료들을 군집분석한 결과에서는 4단 가운데 수오만 제외하고 측은, 사양 및 시비가 선의 군집으로 묶였다. 그런데 이 선의 군집에는 7정 가운데 기쁨, 슬픔 및 사랑도 함께 묶였다.

한편, 4단7정 정서들이 바람직한 공동사회에서 필요한 정도를 판단한 자료들을 군집분석한 결과를 보면, 선악 판단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지만, 선의 군집에 묶였던 7정의 슬픔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정서의 군집에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공동선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유학의 4단7정 범주의 구분은 사회적으로 공동선에 필요한 정도를 판단한 자료에서 더 잘 부합되었다.

연구 4: 4단7정의 상호 포함 관계

퇴계는 4단과 7정이 특히 선악의 측면에서 서로 구별되는 정서임을 강조한다. 반면, 울곡은 인간이 경험하는 기본 정서들은 7정이며, 선악의 구분을 떠나서 말하자면, 4단이 7정에 포함된다는 주장(七包四)을 제안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퇴계의 이론에서 4단은 이(理)가 발현(發)된 순선(純善)이므로 윤리적 의미에서 4단의 가치를 차

별화하는데 이론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므로 4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록 선악이 정해지지 않았으나(善惡未定) 악으로 흐르기 쉬운 7정과 구별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울곡 역시 4단이 순선이며 인간의 정서 경험으로 신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울곡은 윤리적 측면을 떠나서 인간이 경험하는 4단7정 정서의 성질도 해명하고자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울곡이 제시한 4단과 7정의 관계에 관한 견해는 상당이 구체적이다. 필자(한덕용·전경구, 1991; 한덕용, 1994, 123-127쪽, 한덕용, 1996)는 이 주제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다. 그 가운데 이 연구 4와 관련된 부분만을 정리하면 4덕 혹은 4단은 각각 해당 7정에 표 3과 같이 포함된다.

이 표 3에 제시된 칠포사(七包四)의 포함 관계에서 울곡이 제시한 4덕→칠정 관계의 설명과 4단→7정 관계의 설명이 일치되지 않는 점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불일치가 나타난 이유를 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울곡은 사칠관계를 포함관계로 파악하고 포함관계를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한 초기 이론가이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 있다.

둘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이른바 사덕(四德)은 발현되지 않은(未發) 본연지성(本然之性)의 성(性)이며, 사단은 이 사덕이 이미 발현된(已發) 정(情)이므로 7정과 관계가 이론적으로 다를 수 있다. 즉, 4덕은 구체적 4단으로 발현되거나 대응된다는 의미에서 4단의 근원이므로, 사덕 기준, 사단 정서, 7정의 포함관계에 관한 설명이 이론적으로 다를 수 있다.

표 3. 울곡에서 사단(四端) 및 사덕(四德)과 칠정(七情)의 포함 관계

사단과 7정의 관계	사덕과 7정의 관계
측은(惻隱) → 애(愛)	인(仁) → 희(喜), 애(哀), 애(愛), 욕(欲)
수오(羞惡) → 오(惡)	의(義) → 노(怒), 오(惡)
사양(辭讓) → 구(懼)	예(禮) → 구(懼)
시비(是非) → 희(喜), 노(怒)	지(智) → 희(喜), 노(怒), 애(哀), 구(懼)

‘——’: 사단과 사덕에 따른 분류에서 공통되는 칠정

이 두 해석들 가운데 필자의 두 번째 해석은 장래 연구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이 연구의 범위를 필자의 첫 번째 해석으로 한정하면 울곡이 제안한 칠포사(七包四)의 가설은 표 3의 왼쪽 부분에 제시된 4단7정 관계의 예언으로 정리하여 실증연구로 검증할 수 있다.

그런데 칠포사의 가설을 이처럼 정리하더라도 실증연구에서 포함관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된다. 이 포함관계의 정의로서 두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포함된다는 포(包)의 용어를 글자대로 해석해서 주관적으로 경험한 4단 각 정서의 내용이 7정에 각각 포함되는지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사단과 칠정 정서들이 공동으로 발생되고 경험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공동으로 경험되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연구 4에서는 첫 번째 측정적 정의에 따라서 4단과 7정 정서들이 상호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의 연구 5에서는 두 번째 측정적 정의에 따라서 4단과 7정 정서들이 공동 발생된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측정해서 4단과 7정의 포함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지시문에서 조사의 목적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감정 혹은 정서들이 어떤 범주 속에 함께 묶이는지 알아보는데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이어서 4단 가운데 한 정서 용어와 7정 가운데 한 정서 용어를 짝지어서 제시했다. 예를 들어서 「측은」 → 「사랑」으로 제시되었고 “앞의 정서를 경험할 때 뒤의 정서가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전혀 포함 안됨 - 반쯤 포함 - 전부 포함됨의 9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조사에서 4단과 7정의 각 정서는 제시 순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사단 → 칠정 포함관계와 칠정 ← 사단 포함관계를 평정하는 두 유형의 질문지를 만들었다. 정서쌍들의 제시 순서도 무선화 하였고, 피험자들은 한 질문지에만 반응했다. 이처럼 각각 얻은 측정치들로부터 두 종류의 질문지 반응을 합해서 포함관계 측정치의 평균을 산출했다.

조사의 대상도 유학의 4단7정론에 관해서 사전 지식

이 없는 350명(서울, 남학생 150 여학생 55명; 대구, 남학생 81명 여학생 64명)의 대학생들이었다. 이 가운데 4단 각 정서가 7정 각각에 포함되는 정도를 판단하여 사단→칠정 관계를 평정한 대학생들은 160명이었으며(서울, 남학생 90 여학생 37; 대구 남학생 37 여학생 13), 나머지 190명은 칠정→사단 관계를 평정했다. 두 유형의 질문지 반응을 합해서 사단→칠정의 전체 포함 관계를 측정된 평균치가 산출되었다.

결과 및 논의

4단 각 정서를 경험할 때 7정 정서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수준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4단이 7정에 포함되는 수준의 평균(표준편차)

4 단	7 정
측은	기쁨 2.10(1.63), 화남 2.79(1.86), 분노 2.89(1.95)
	슬픔 5.91(1.70), 두려움 2.16(1.56), 사랑 5.51(1.91)
	미움 2.26(1.39), 욕심 2.28(1.66)
수치심	기쁨 1.76(1.12), 화남 5.88(2.08), 분노 5.87(2.11)
	슬픔 4.79(2.36), 두려움 5.11(2.19), 사랑 2.85(2.16)
	미움 4.55(2.25), 욕심 4.16(2.35)
타인혐오	기쁨 1.85(1.21), 화남 5.85(1.94), 분노 5.87(1.96)
	슬픔 3.75(2.00), 두려움 4.41(2.18), 사랑 2.12(1.50)
	미움 6.56(1.98), 욕심 3.75(2.30)
양보심	기쁨 5.98(1.78), 화남 2.24(1.60), 분노 1.96(1.19)
	슬픔 2.62(1.89), 두려움 3.01(1.86), 사랑 6.33(1.99)
	미움 2.35(1.52), 욕심 2.73(1.76)
사양심	기쁨 4.80(2.18), 화남 2.42(1.42), 분노 2.36(1.50)
	슬픔 2.72(1.76), 두려움 2.66(1.60), 사랑 5.04(2.15)
	미움 2.57(1.58), 욕심 2.32(1.51)
시비심	기쁨 2.74(1.82), 화남 4.94(2.22), 분노 4.41(2.25)
	슬픔 3.05(1.91), 두려움 3.15(1.86), 사랑 3.02(1.81)
	미움 4.68(2.37), 욕심 4.20(2.13)
울고그름을 따지려는 마음	기쁨 3.45(1.99), 화남 4.70(2.20), 분노 5.06(2.17)
	슬픔 2.65(1.93), 두려움 3.43(1.94), 사랑 3.83(1.97)
	미움 3.85(2.20), 욕심 4.24(2.17)

* 큰 점수일수록 각 4단 정서가 각 7정에 포함된다고 판단된 결과임 (1 전혀포함안됨, 5 반쯤포함, 9 전부포함)

이 결과에 의해서 4단이 7정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울곡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울곡은 측은이 사랑에, 수오는 미움에, 사양은 두려움에, 그리고 시비는 기쁨과 화남(혹은 분노)에 각각 속한다고 주장했다.

울곡이 예측한 이 칠포사(七包四)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 7정을 각각 표 4의 정서 용어들로 옮기고 평균이 5점 이상인 경우를 포함관계로 해석했을 때, 측은은 슬픔(5.91)과 사랑(5.51)에 포함되었다. 이 결과는 측은이 사랑에 포함되는 점에서는 울곡의 가설과 일치한다. 그러나 울곡의 주장과 달리 측은이 슬픔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4덕과 7정의 포함관계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울곡은 인(仁)이 사랑, 슬픔 이외에 기쁨과 욕망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과 달리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비록 4단은 아니지만, 4덕까지 연관되었을 때 측은의 근원인 인(仁)이 기쁨과 욕망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오는 주희(朱熹)의 해석대로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타인에 대한 혐오로 나누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를 해 보자. 수치심은 화남(5.88), 분노(5.87), 두려움(5.11)에 포함되었으며, 타인에 대한 혐오는 미움(6.56), 분노(5.87), 화남(5.85)에 포함되었다.

이 결과는 울곡이 수오는 미움에만 포함된다고 주장한 바와 다르다. 그러나 4단의 수오와 관련되는 4덕의 의(義)가 미움 이외에 분노와 관련된다고 본 점을 고려하면, 수오에 관한 울곡의 주장이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양 역시 주희의 해석대로 나의 몫을 받지 않음(사양)과 타인에게 베품(양보)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사양은 사랑(5.04)에 포함되고(참고: 기쁨, 4.80), 양보는 사랑(6.33)과 기쁨(5.98)에 포함된다고 평정하였다. 이 결과는 울곡의 주장과 일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울곡은 4단의 사양이나 4덕의 예(禮)가 모두 두려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사양(2.66)과 양보(3.01) 모두 두려움에 포함된다고 판단된 수준이 낮았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점은 퇴계나 울곡이 사양을 이해할 때 공경 등을 포괄해서 예의바른 행동에서 어긋날 때 경험하는 정서로 두려움을 염두에 둔데서 비롯된 듯하다.

시비지심(是非之心)은 감정적 시비심, 옳고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의 의도적 지향성 혹은 옳은 바를 옳다하고 잘못된 바를 잘못했다고 하는 행동 경향으로 달리 번역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시비심으로 옳었을 때 7정의 화남(4.94)에 비교적 높게 포함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으로 옳기면 분노(5.05, 화남, 4.70))에 포함되어서, 시비가 분노에 포함된다는 울곡의 주장과 일치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비가 기쁨에도 포함된다는 울곡의 주장은 시비심으로 옳었을 때(2.74)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으로 옳었을 때(3.45)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필자는 시비지심이 기쁨과 관련된다는 울곡의 주장은 유학의 도리로 볼 때 옳은 바를 옳다하고 그른 바를 그르다고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경험하는 일종의 자부심이나 정의감 정서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 4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단이 7정에 포함된다는 울곡의 가설들 가운데 50% 이상이 일치된 반응을 보였을 때를 포함되는 관계로 정의하면, 측은이 사랑에 포함되고, 수오가 미움에 포함되며, 시비가 분노(혹은 화남)에 포함된다는 가설은 입증되었다. 그러나 사양이 두려움에 포함되며 시비가 기쁨에 포함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울곡의 가설과는 달리 측은은 슬픔에, 수오가 분노(화남)와 두려움(수치심의 경우)에, 그리고 사양은 사랑에도 각각 포함되었다. 양보의 경우에는 기쁨에도 포함되었다.

연구 5: 4단7정 정서의 공동 발생 경험

4단 정서가 7정 정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울곡의 주장은 4단 정서를 복합 정서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앞의 연구에서는 필자의 이 해석에 근거하여 4단이 각각 7정 중 어떤 정서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4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바 7정이 4단을 포함한다는 칠포사(七包四)의 가설은, 직접 포함 관계를 묻지 않고, 4단과 7정 각각이 함께 경험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검증할 수도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울곡의 칠포사가설(七包四假說)은 4단의 한 정서와 7정의 정서가 동시에 공동으로 발생하

여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공동발생 경험에 근거를 두고 제안된 가설일 수도 있다. 연구 5에서는 필자의 이 해석에 따라서 4단과 7정이 함께 경험되는 수준에 의해서 칠포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 5에서 얻은 결과는 앞의 연구 4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두 대안적 해석의 상대적 적절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 4단과 7정 정서 이론의 측면에서 더욱 흥미있는 시사점은 공발생 경험을 다루게 될 때 4단과 7정의 관계에서 시계열로 볼 때 선행 정서와 후행 정서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

방법 및 절차

지시문에서 4단 가운데 한 정서와 7정 가운데 한 정서를 짝지워 제시하고(예, 측은-사랑), “둘씩 짝지워진 감정 혹은 정서들이 함께 경험되거나 별개로 경험되는 정도”를 1(별개 경험)부터 5(반반 경험)를 거쳐 9(함께 경험)까지 9점 척도에 평정토록 하였다. 짝지워진 정서쌍은 제시 순서를 바꾸어서(예, 측은-사랑, 사랑-측은) 두 종류의 질문지를 만들었으며, 정서 쌍의 제시 순서는 무선화되었다. 피험자들은 한 질문지에만 반응했다. 조사 대상은 역시 4단7정론을 접하지 않은 서울(남 156, 여 12), 대전(남 6, 여 30), 대구(남 88, 여 147)의 대학생 439명이었다.

결과 및 논의

4단과 7정 쌍이 함께 경험된 정도를 9점 척도에 평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결과들을 정리해 보자. 측은은 슬픔(6.34)과 사랑(5.44)과 공동으로 경험된다고 판단되었다. 이 결과는 4단과 7정의 포함 관계를 다룬 연구 4의 결과와 일치된다. 이 두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면 측은이 슬픔 및 사랑에 포함되고 함께 경험되는 정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울곡은 측은이 사랑에만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므로 주장의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수오 가운데 수치심은 화남(5.84, 분노(5.65)), 두려움(5.19), 슬픔(5.11) 및 미움(5.08)의 다양한 7정들과 함께 경험되는 정서로서 판단되었다. 연구 4에서 수치심은 분노(화남)와 두려움에 포함되는 정서로서 평가되었으며 슬픔(4.79)에도 포함되는 경향이 높았다. 수치심과

표 5. 4단과 7정의 공동 발생 경험의 평정치 평균(표준편차)

4단			7정					
측은	기쁨	2.51(1.66)	화남	3.36(2.19)	분노	3.43(2.26)	슬픔	6.34(2.02)
	두려움	2.44(1.83)	사랑	5.44(2.32)	미움	3.21(2.02)	욕심	2.39(1.87)
수치심	기쁨	2.20(1.58)	화남	5.84(2.20)	분노	5.65(2.37)	슬픔	5.11(2.34)
	두려움	5.19(2.38)	사랑	3.99(2.61)	미움	5.08(2.45)	욕심	3.93(2.36)
타인혐오	기쁨	2.17(1.48)	화남	6.29(2.06)	분노	6.30(2.12)	슬픔	4.29(2.47)
	두려움	4.82(2.41)	사랑	2.44(1.80)	미움	6.83(2.03)	욕심	4.26(2.48)
양보심	기쁨	6.62(1.86)	화남	2.76(1.97)	분노	2.47(1.70)	슬픔	3.38(2.13)
	두려움	3.50(2.28)	사랑	7.01(2.05)	미움	2.79(1.96)	욕심	3.54(2.31)
사양심	기쁨	5.74(2.12)	화남	2.82(1.85)	분노	2.79(1.73)	슬픔	3.48(2.12)
	두려움	3.20(2.00)	사랑	5.83(2.23)	미움	2.86(1.88)	욕심	2.85(2.01)
시비심	기쁨	3.65(2.21)	화남	5.05(2.35)	분노	4.72(2.36)	슬픔	3.30(2.16)
	두려움	3.65(2.13)	사랑	3.57(2.22)	미움	4.90(2.50)	욕심	4.67(2.44)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	기쁨	4.26(2.32)	화남	5.17(2.37)	분노	5.30(2.34)	슬픔	3.20(2.19)
	두려움	4.09(2.31)	사랑	4.16(2.32)	미움	4.66(2.48)	욕심	5.00(2.47)

* 큰 점수일수록 공동 발생경험 높음(1 별개 경험, 5 반반 경험, 9 함께 경험)

미움이 공동 발생된다고 판단한 결과는 자기 관련 정서로서 미움이 지적된데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수오 가운데 타인 혐오는 미움(6.83), 분노(6.30, 화남(6.29))와 공동 경험한다고 판단되어서 4·7의 포함관계와 공동 경험 관계의 판단 결과가 일치되었다.

사양 가운데 양보심은 사랑(7.01) 및 기쁨(6.62)과 공동 경험된다고 판단되었는데, 이 결과 역시 4·7 포함 관계를 판단해서 얻은 자료와 일치된 결과이다. 사양 가운데 사양심도 사랑(5.83) 및 기쁨(7.54)과 공동 발생한다고 판단되었다. 이 결과에서 포함 관계의 평정에서도 사랑(5.04)은 동일하였으나, 기쁨은 공동 경험의 판단과 달리 포함관계에서 다소 낮았다(4.80). 사양에서 양보와 사양을 모두 포괄해 볼 때, 포함관계의 평정과 마찬가지로 공동 경험의 판단에서도 울곡이 주장한대로 사양심이 두려움(양보심과 3.50, 사양심과 3.20)과 연결된다는 가설은 일관되게 지지되지 않았다.

시비지심을 시비심으로 번역했을 때 화남(5.05), 분노(4.72) 및 미움(4.90)과 공동 경험되는 경향이 높은 정서로 판단되었다. 4·7의 포함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시비심이 화남(4.94, 분노(4.41))과 미움(4.65)이 포

합되는 경향이 높게 평가되었다. 시비지심을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으로 번역했을 때에 분노(5.06, 화남(4.70))와 공동으로 경험된다고 판단되었다. 울곡의 주장대로 시비심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이 기쁨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4·7의 포함관계를 다룬 결과나 공동 경험을 판단한 결과에서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이 연구 5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측은은 슬픔 및 사랑과 공동 경험된다고 판단되었는데, 이 가운데 측은이 슬픔과 연결된 결과는 울곡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수오를 수치심과 타인혐오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동 경험한 7정에는 분노(화남)와 미움이 공동으로 지적되었다. 이 가운데 수오가 미움과 연결된 결과는 울곡의 가설과 일치된다. 사양을 양보와 사양으로 구분해서 공동 경험되는 철정을 알아 본 결과를 보면 사랑과 기쁨이 공통되게 연결되었다. 울곡은 사양이 두려움과 연결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결과는 울곡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울곡은 시비지심이 기쁨 및 분노(화남)와 연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가운데 시비지심이 분노(화남)와 공동으로 경험된다고 가정한 부분이 지지되었다.

종합 논의

4단·7정 정서의 의미론적 차원

연구 1에서 정서들 상호간 의미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유사 범주별로 4단7정에 속하는 정서들을 분류한 자료를 다차원분석과 군집분석했을 때 4단7정 정서들은 긍정-부정 및 능동-수동 두 차원 평면에서 네개 군집들로 묶였다. 이 두 차원의 의미 해석을 위해서 선악과 쾌-불쾌의 두 축을 넣었을 때 두 축 모두 제 1차원의 긍정-부정과 매우 유사한 위치에 놓였다. 의미론적으로 추출된 제 1차원은 선악의 축으로 해석했을 때($R=.932$)와 마찬가지로 쾌-불쾌의 축으로 해석했을 때($R=.956$)도 모두 매우 높고 유의한 중다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4·7 정서가 유발된 사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4·7 정서들의 의미 차원을 추출했을 때는 쾌-불쾌 차원과 차별되게 선-악의 축으로 4단과 7정의 차이가 더 잘 설명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동일한 4단7정 정서들은 네개 군집으로 묶였는데 다차원분석의 결과와 연결지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욕심, 분노(화남), 타인혐오가 묶인 군집은 다차원 분석의 제 1차원에서 부정적 정서들로 볼 수 있는데, 제 2차원에서는 능동적 극단에 위치했다. 다차원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치심, 슬픔, 두려움은 부정적이며 소극적 정서들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군집분석에서는 이 정서들 이외에 긍정적이며 소극적 정서인 측은을 포함함으로써 이 군집이 긍정-부정보다는 소극적 공통점을 지닌 정서들로 해석될 수 있다.

다차원 분석에서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정서들로는 기쁨, 사랑, 옹고 그림을 따지려는 마음이 포함되고, 긍정적-소극적 정서들로는 측은과 사양(양보)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군집분석에서는 위의 정서들 가운데 옹고 그림을 따지려는 마음은 단 하나로서 독립된 군집을 이루고, 측은은 수치심, 슬픔, 두려움의 군집에 함께 묶였다. 따라서 사랑, 사양(양보) 및 기쁨은 능동적 혹은 소극적 여부에 상관없이, 긍정적 정서의 범주를 이룬다.

이 결과에서 4단7정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의미의 유사성으로 볼 때 4단과 7정이 각각 유사한 의미로 묶인다고 판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세

부적으로 보면 4단 가운데 측은과 사양(양보) 및 7정의 사랑과 기쁨은 긍정적 정서로 판단되고, 옹고 그림을 따지려는 마음은 중립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4단의 수오(수치심과 타인혐오)와 7정의 슬픔, 욕심, 화남(분함), 두려움은 부정적 정서로 판단되었다.

4단7정 정서의 선악 평가와 선악 범주

유학에서 4단7정의 분류 범주는 이기론과 관련되면서 도덕적 의미에서 선악에서 구별되는 정서들의 범주로서 논의된다. 따라서 4단 정서들은 선하고 7정 정서들은 악하다고 가정하거나(퇴계설), 선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중립적 정서로 평가된다고(울곡설) 가정된다. 선악을 글자 그대로 선-악 수준으로 평정한 결과를 보면 4단과 7정 범주에 속한 정서들의 선악 평균으로 볼 때 각각 9점 척도에서 4단과 7정이 5.80과 5.04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평균으로 볼 때 7정이 선악 차원에서 중립적으로 평가되는 바와 달리 4단 정서들은 선하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악을 유학의 이념에 가깝게 공동선의 관점에서 좋은 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평정했을 때는 4단과 7정의 평균이 이 각각 5.64와 4.60이었다. 이 결과로부터 평균으로 볼 때 4단 범주의 정서들은 선하다고 평가되지만 7정은 중립보다 다소 악하다고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4단의 선함을 주장한 퇴계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7정의 평균이 선악에서 중립적이거나 다소 악하게 평가된 결과는 퇴계설을 지지한다.

이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4단의 모든 정서들이 선하다고 평가되지 않은 사실이다. 즉, 4단 가운데 수오의 경우에는 선악의 평가(수치심 4.92, 타인혐오 2.56)나 좋은 사회에서 필요성의 평가(수치심 4.21, 타인혐오 2.56)에서 모두 수치심은 중립적으로 그리고 타인혐오는 악한 정서로서 평가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4단의 다른 세 정서들이 무조건으로 선하게 평가되는 바와 달리, 수오(혹은 타인혐오만)는 수오 정서가 경험되는 상황 혹은 조건이 유학의 당위적 기준으로 볼 때 선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만 다른 세 정서들처럼 선하다고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측은, 사양 및 시비가 조건에 상관없이 선하다고 평가되

는 바와 달리 수오는 유학의 당위적 조건에 적합하거나 적합한 조건에서 시(是)를 경험하고 적합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비(非)를 경험하는 경우에만 선하다고 평가되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7정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선악판단과 사회의 공동선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모두 선한 정서로 평가된 점이다. 4단 가운데 수오가 선악 판단에서 악한 정서로 판단된 점과 아울러 7정의 사랑과 기쁨이 선한 정서로 판단된 점은 4단7정의 양분된 범주에 따라서 단순하게 선악을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서 4단7정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혹은 조건으로 사회관계와 행동적 사건이 유학의 당위적 기준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4단7정 범주를 항상 각각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필자의 이 관점을 쉽게 이해하려면 연구 2와 3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4단7정 정서들을 개인적 선악과 사회공동체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두 자료를 사용하여 군집분석했을 때 그 결과가 두 자료에서 모두 선악의 두 군집으로 묶였다. 즉 선악을 판단한 자료에서는 측은, 사양(양보), 옹고그름을 따지려는 마음, 기쁨, 사랑 및 슬픔이 선한 정서의 군집으로 묶이고, 수치심, 두려움, 욕심, 화남(분함) 및 타인혐오감이 악한 정서 군집으로 묶였다.

사회공동체의 필요성 판단에서 얻은 결과와 선악 판단에서 각각 얻은 결과의 차이로는 슬픔이 사회공동체의 기준으로 볼 때 공동선에서 좋지 않다고 판단된 정서 군집에 묶인 점만 다르다. 연구 2와 3의 결과들로부터 선악의 두 범주에는 각각 4단과 7정을 차별적으로 상당수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4단과 7정으로 묶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해서 각 정서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할 때 상황에 따른 다른 부가적 조건의 제시없이 4단과 7정 정서를 평가했을 때 4단과 7정 범주의 모든 정서들이 예외없이 각각 선악으로 양분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다.

앞에서는 4단7정을 여러 기법으로 평가한 결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다른 5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단의 네 정서들이 분류나 평가 방법에 따라서 두 범주로 나뉘어서 함께 묶이는 수준을 보면, 4단7정 정서들의 의미연결 관계를 범주화하여 분류한 결과(사양, 측은 혹은 사양보다 선악을 평정한 결과(측은, 사양, 시비)가 더 유사하다. 또한 선악을 평정한 결과보다 공동선의 관점에서 사회공동체에 필요한 정도를 평정한 결과(측은, 사양, 시비)에서 4단 범주

표 6. 4단7정의 평가 결과 요약

연구	측정법	정적 평가 정서	부적 평가 정서
연구 1: 의미 유사성	다차원분석 제 1차원 (긍정 - 부정)	사랑, 사양(양보), 기쁨, 옹고그름가림, 측은	타인혐오, 화남(분노), 두려움, 수치심, 욕심, 슬픔, 미움
	군집분석 (긍정 - 부정)	사랑, 사양(양보), 기쁨,	타인혐오, 화남(분노), 두려움, 수치심, 욕심, 슬픔, 측은
연구 2, 3:	선악 평균	사랑, 사양(양보), 기쁨, 옹고그름가림, 측은, 슬픔	타인혐오, 화남(분함), 욕심, 미움
선악사회 공동체에서 필요성 판단	선악판단군집분석 (긍정 - 부정)	사랑, 사양(양보), 기쁨, 옹고그름가림, 측은, 슬픔	타인혐오, 화남(분함), 두려움, 수치심, 욕심
	사회공동체 필요성 평균	사랑, 사양(양보), 기쁨, 옹고그름가림, 측은	타인혐오, 화남(분노), 두려움, 수치심, 욕심, 슬픔, 미움
	사회공동체 필요성 군집분석	사랑, 사양(양보), 기쁨, 옹고그름가림, 측은	타인혐오, 화남(분함), 두려움, 수치심, 욕심, 슬픔

* 명조체는 결과가 불일치된 정서들

와 더욱 유사하였다. 이 결과는 성리학자들이 4단 범주를 선하다고 주장하는 관점이 단순히 4단의 의미나 개인적 선의 기준보다 개념적으로 사회적 공동선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4단 가운데 평가 방법이나 분석 기법에 상관없이 완전히 일관되게 긍정적이거나 선하다고 평정된 정서는 사양(양보)뿐이었다. 하나의 자료 혹은 한 가지 분석 기법에서만 불일치되고 나머지 5가지 분석에서 긍정적 정서 혹은 선한 정서라고 평정된 4단으로는, 완전히 일치된 사양(양보) 이외에, 측은과 시비가 포함된다. 수오는 어떤 자료에서도 긍정적 혹은 선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셋째, 모든 자료에서 긍정적 혹은 선한 정서로서 7정의 사랑과 기쁨이 선하다고 평가된 4단 정서들과 함께 묶였다. 이 가운데 7정의 사랑은 애정 혹은 애욕을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래 연구에서는 이들 용어로 옮겨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들을 염두에 두고 필자는 4단7정론에서 제안된 4단7정의 범주와 선악 판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논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장래 연구할 과제에 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7정 정서들의 경험은 각 정서 경험을 유발하는 조건이 유학의 당위적 기준과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조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관계에서 유학의 당위적 기준이 공동선과 상관없이 개인선의 관점에서 4단7정이 경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장래 연구에서는 개인선의 관점이나 공동선의 관점에서 볼 때 당위의 기준에 합치되거나 혹은 갈등을 일으키는 조건에서 각각 4단이나 7정 각 정서들의 경험이 선악의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다룰 필요가 있다.

필자가 서론에서 제시한 4단7정 정서의 발생과 경험 과정에 따라서 이 관점을 설명해 보자. 실험에서 독립변인으로 ① 4단7정을 유발하는 상황 혹은 조건을 세분해보면 사회관계유형×행동적 사건×당위적 기준에 따라서 구분되는 여러 조건을 다룰 수 있다. 이 조건에서 ② 각각 경험하는 4단7정의 각 정서들을 제시한 후에 ③ 종속변인으로 선악 판단을 다룰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접근법을 사용했을 때 4단과 7정을 선악

으로 평가하면 두 범주간에 어떤 차이를 보일까? 4단의 설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리학에 근거를 두고 4단과 7정을 구분하려는 관점을 취하면 필자가 제안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사회관계에서 발생한 자기나 타인의 행동적 사건이 유학에서 제안된 사회에서 공동선의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4단 가운데 측은, 사양 및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은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단 가운데 수오는 성리학에서 제안된 공동선의 기준에 불합치된 행동적 사건이나 결과가 나타난 조건에서 자기나(수치심),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이다. 그러나 7정들은 이 기준에 상관없이 경험될 수 있다. 그러므로 7정 정서들은 사회공동체의 기준에 합치되게 도리에 맞게 경험되었을 때만 선하다고 평가되고, 이 기준에 합치되지 않게 경험되면 악하다고 평가된다. 4단7정의 범주별 구분에 관해서는 필자의 이 대안 가설을 다루는 일이 후속 연구의 과제이다.

4단과 7정의 포함 관계

4단이 7정에 포함된다는 울곡의 가설은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첫째, 울곡의 칠포사(七包四) 가설을 글자대로 해석해서 4단을 일종의 복합 정서로 보고 4단이 각각 7정 요소들에 포함되는 정도를 검증했다. 둘째, 4단이 7정에 포함된다고 설명된 관계를 4단과 7정의 공동 발생 경험으로 검증했다. 울곡의 이 가설은 연구 4 및 5에서 두 방법으로 검증하였는데, 실증연구의 결과는 표 7에 비교하기 쉽도록 요약되었다.

이 표에서 울곡의 칠포사 가설 가운데 측은→사랑(愛)과, 수오→미움(惡)은 잘 지지되고, 시비→기쁨(喜) 그리고 시비→화남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반면, 사양→두려움과 시비→기쁨 부분은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한가지 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울곡이 가정한 바와 달리 4단이 다른 7정에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즉, 측은은 울곡이 가정한 사랑 이외에 슬픔에도 포함되며, 수오는 화남(분노)에, 사양은 사랑과 기쁨에, 그리고 시비는 화남(분노)에 포함되거나, 공동 경험되는 정서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울곡의 칠포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했을 때 지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 4와 5의 결과에 근거를 두고 필자가 칠포사

표 7. 율곡의 칠포사(七包四) 가설과 검증 결과

율곡의 가설	검 증 결 과	
	연구 4: 포함 관계	연구 5: 공동 발생 경험
측은→사랑(愛)	슬픔(5.91), 사랑(5.51)	슬픔(6.34), 사랑(5.44)
수오→미움(惡)	수치심: 화남(5.88, 분노 5.87), 두려움(5.11), 미움(4.55)	수치심: 화남(5.84, 분노 5.65), 두려움(5.19), 슬픔(5.11), 미움(5.08)
	타인혐오: 미움(6.56), 화남(5.85, 분노 5.87)	타인혐오: 미움(6.83), 화남(6.29, 분노 6.30)
사양→두려움(懼)	양보심: 사랑(6.33), 기쁨(5.98), 두려움(3.01) 사양심: 사랑(5.04), 기쁨(4.80), 두려움(2.66)	양보심: 사랑(7.01), 기쁨(6.62), 두려움(3.50) 사양심: 사랑(5.83), 기쁨(5.74), 두려움(3.20)
시비→기쁨(喜),	시비심: 화남(4.94), 기쁨(2.74), 화남(怒)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 분노(5.06, 화남 4.70), 기쁨(3.45)	시비심: 화남(5.05, 분노 4.72), 기쁨(3.65)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 화남(5.17, 분노 5.30), 욕심(5.00), 기쁨(4.26)

* 고딕은 지지된 결과, 밑줄 부분은 지지되지 않은 결과

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수정 제안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측은은 슬픔 및 사랑과 관련되게 나타나며 수오는 화남과 두려움에 관련된다. 수오를 자기에 대한 수치심과 타인에 대한 미움(혐오)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수(羞)는 두려움에 관련되고, 오(惡)는 미움과 화남(분노)에 관련된다.

사양은 사랑과 기쁨에 관련된다. 이 사양을 세분하여 자기 몫을 사양하기와 남에게 베푸는 양보로 나눌 때 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시비는 화남(분노)과 관련된다. 시비에 관한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시비를 시비심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으로 옳졌을 때, 시비심으로 번역했을 때보다, 기쁨과 공동 발생 경험이 다소 높게 평가된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단과 7정에 속하는 정서들을 한글로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 현상은 영어의 정서 용어를 한글로 옮길 때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영어의 angry는 흔히 분노로 옮기는데 분함(忿)을 의미하는 분(忿)의 의미를 제외하고 노함, 성남 등의 한국어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4단7정 정서에 사용된 한문을 한글로 옮길 때 다양한 번역어들을 대안들로 사용하여 일관된 결과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율곡의 가정에 근접하게 시비를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시시비비(是非非非)에 해당되는 의미로 '옳은 바를 옳다하고 그른 바를 그르다고 함'으로 옮길 수 있다. 시비를 이처럼 번역할 경우 비(非)가 화남(분노)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시(是)는 기쁨과 관련될 수도 있겠다. 시비의 한글 용어 번역에서 보는 대로, 4단7정 정서 가운데 노(怒, 성냄, 화냄, 분노), 애(哀, 슬픔, 서러움), 애(愛, 사랑, 애정), 오(惡, 혐오, 미움), 욕(慾, 욕심, 욕망, 의욕) 등의 정서들이 대안 번역 용어를 지닌다. 4단에 대해서도 다른 번역 용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4단 가운데 수오를 자기 수치심과 타인에 대한 혐오로 나누고, 사양을 자기 몫의 사양과 타인에게 베푸는 양보로 나누어 옮긴 근거는 주희(四書集註, 孟子, 經書, 516쪽)의 주석에서 볼 수 있다. 이 주석에서 주희는 시비의 의미를 설명할 때 시(是)는 선함을 알아서 옳다고 여김이며, 비(非)는 선하지 않음을 알아서 그르다고 여김이라고 해석했다. 이 연구에서 여러 대안 번역 용어들이 함께 다루어졌지만, 여러 대안 번역 용어들에 관한 비교 연구도 상당히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난 조건에서 4단7정을 각각 경험할 때 선악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루지는 않았다. 장래 연구에서 대인관계와 행위

의 도덕성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상황의 맥락에서 어떤 선악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한국 유학에서 제안된 4단7정 정서설로부터 심리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가설들을 도출하고 그 가운데 일부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이다. 동양철학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현상과 비교해 볼 때 정서에 관한 일종의 심리철학으로 볼 수 있는 이 주제를 한국심리학계에서 심도있게 다룬다면 사회행동과 정서이론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 연구의 영역에서도 동양철학과 심리학 분야에 각각 기여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기현(2000). 조선조를 뒤흔든 논쟁: 사단칠정론 논변은 무엇을 남겼나?. 서울: 도서출판 길.
민족과 사상 연구회(1992). 四端七情論. 서울: 서광사.

정양은(1970). 감정론의 동서 비교 연구: 사회적 감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1권, 3호, 77-90.
주희(1959). 四書集註, 맹자, 經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한덕웅(1993). 퇴계의 성리학에 관한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1).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78, 40-90.
한덕웅(1994). 퇴계심리학: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한덕웅(1996). 퇴계 심학의 실증적 연구 방향 모색.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89(특집호), 44-62.
한덕웅(1996). 대인관계에서 4단7정 정서의 발생경험. 한국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89-409.
한덕웅·전경구(1991). 정서과정설로서의 퇴계의 사·칠론.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별쇄본.
한덕웅·전경구(1995). 4단7정론에 관한 정서이론적 접근. 동양사상과 심리학(임능빈 편집). 서울: 성원사.

Empirical Studies on the Four-Seven Emotion Debate of Korean Neo-Confucianism

Doug-Woong Hahn

Dep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

The well known Four-Seven debates of neo-confucianism during the Chosun dynasty contain many psychological theories of emotion. In this article the empirically testable psychological hypothesis were derived from the debates among Toegye, Kobong, Yulgok and Ugae. The derived hypotheses were verified through 5 experimental studies. These studies dealt with the semantic associations, differences in the judgement of good-evil dimension in terms of personal and communal good-bad, and mutual inclusiveness among the four beginnings and the seven emotions. The main results revealed that the four beginnings and the seven emotions consisted of two dimensions with minor exceptions. It was also found that the four beginnings were rated on the average as good compared with the seven emotions, though there were exceptions of shame and disgust as bad among the four beginnings, and love as good among the seven emotions. The inclusiveness hypothesis, which was proposed by Yulgok, was partly supported.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